

K-Food 수출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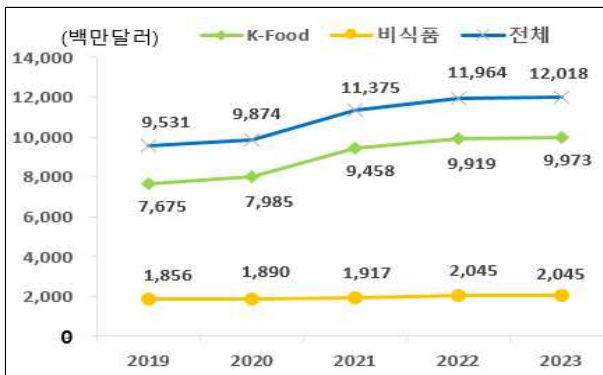
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
 정윤경 (yjkjung@kdb.co.kr)
 박제홍 (pajh1508@gmail.com)

- ◆ 세계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, K-콘텐츠의 유행에 힘입어 K-Food의 수출액은 아시아 및 북중미를 중심으로 지속 증가중
- ◆ 성장하고 있는 K-Food의 지속적인 수출 증대를 위해서는 각국의 수입규제 상황에 대응된 정보제공 등 다양한 제도적인 지원 필요

□ 세계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K-Food(농식품)의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중

- '23년 우리나라의 K-Food 수출액은 9,973백만달러에 달하여 '19년 수출액(7,675백만달러) 대비 29.9%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추가 추세
 - 농림수산물 가운데 비식품(종자, 사료 등) 수출의 성장세가 정체된 가운데 K-Food 수출이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농림수산물 수출액 증가를 견인
- K-Food 수출 증가를 견인한 품목을 살펴보면, 라면, 김, 기타 조제품류(건강기능식품 등)가 큰 폭의 증가를 보이고 있음
 - 특히, K-POP 열풍과 SNS를 중심으로 매운라면 먹기 챌린지 등이 유행함에 따라 라면 수출이 '23년 K-Food 전체 수출액의 9.5%를 기록하는 등 큰 비중을 기록
 - 라면 : ('19년) 467백만달러 → ('23년) 952백만달러 ('19년比 +103.9%)
 - 조제품 기타 : ('19년) 342백만달러 → ('23년) 633백만달러 ('19년比 +85.1%)

최근 5개년 농림수산물의 수출 추이



자료 : KATI(농식품수출정보)

'23년 기준 K-Food 수출액 상위 5개 품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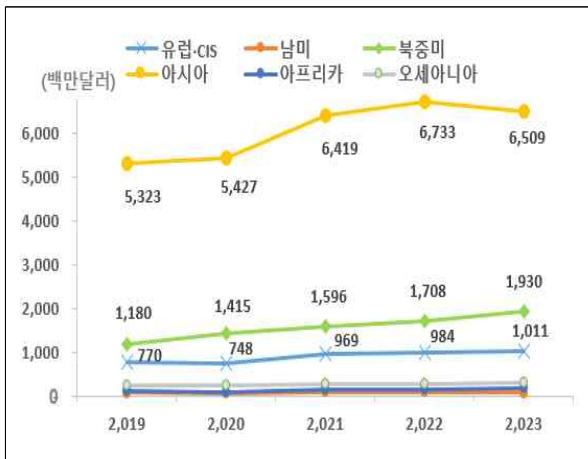
(단위 : 백만달러)

구분	'19년	'23년	증가율(%)
라면	467	952	+103.9
조제품 기타	342	633	+85.1
김(Laver)	105	498	+374.3
기타(알코올 함유하지 않은 음료) (과실·야채주스 제외)	270	392	+45.2
김(건조한 것)	201	293	+45.8

주 : 품목은 HS CODE 기준
 자료 : KATI(농식품수출정보)

- 또한, '19년 대비 '23년 K-Food의 수출액은 증가율 기준으로는 아시아('19년비 +1,186백만달러)가, 증가율 기준으로는 북중미('19년비 +63.5%)의 성장세가 큼
 - 국가별로는 미국, 중국, 베트남 등이 수출액 증가를 견인중
 - 미국 : ('19년) 984백만달러 → ('23년) 1,646백만달러 ('19년비 +67.3%)
 - 중국 : ('19년) 1,455백만달러 → ('23년) 1,896백만달러 ('19년비 +30.3%)
 - 베트남 : ('19년) 498백만달러 → ('23년) 683백만달러 ('19년비 +37.1%)

최근 5개년 대륙별 K-Food 수출 추이



자료 : KATI(농식품수출정보)

'19년 대비 '23년 대륙별 수출액 증가율

(단위 : 백만달러)

구 분	'19년	'23년	증가율(%)
유럽-CIS	770	1,011	+31.3
남미	64	64	-
북중미	1,180	1,930	+63.6
아시아	5,323	6,509	+22.3
아프리카	113	164	+45.1
오세아니아	226	295	+30.5
총계	7,675	9,973	+29.9

자료 : KATI(농식품수출정보)

□ 성장하고 있는 K-Food의 지속적인 수출 증대를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

- 정부는 '23.1월 K-Food 산업에 전후방산업(스마트팜, 농기자재 등)을 포함하여 육성하는 'K-Food' 수출확대 추진본부*를 발족
 - 이를 통해 프랑스, 베트남 등에서 K-Food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수출지원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나,
 - 식품 수출기업들은 각국의 수입식품 규정 강화, ESG 경영도입 요구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한 상황**

* 농식품부 보도자료('23.1.25자), "민간과 정부가 함께 뛰는 「케이-푸드(K-Food) 수출 확대 추진본부」 출범"

** 농식품부 보도자료('23.6.28자), "글로벌 케이푸드(K-Food) 시장확대를 위한 제4차 식품산업 진흥 기본계획 발표"

- 최근 수입국 식품규제 강화 추세는 K-Food 확대에 장애물로 작용하므로, 각국의 수입규정에 맞는 정보 및 맞춤형 컨설팅 제공 등 정책적 지원 확대 중요
 - 또한, 국가 차원에서 식품 규제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, 국내인증을 기반으로 수출 상대국에서 수입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 필요